



### 시흥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시흥시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결혼이민자 40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시흥시 지원으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취업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시흥시에 거주하며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토픽II)에 응시한 결혼이민자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II 3~6급) 응시 후 5만5,000원의 응시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1월까지 시흥시가족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참여자 모집으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가족이 행복한 시흥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가족복지 안정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공동체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며 가족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며 “소중한 ‘가족’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고, 다양한 ‘가족’이기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가족센터 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는 지난 2월 29일 신학기 개학을 맞아 시흥시가족센터에 방문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원품 전달식에는 7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전달됐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후원된 온누리 상품권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신학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에게 신학기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모두가 따뜻한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먼저 실천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가족센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 가스안전관리 행동 요령 및 사고 대응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김영의 기자

## ☆☆☆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신입생 신청 안내


**자녀교육 문제와 고민**  
 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교 자녀의 가정학습을 담당하고 교사와 소통하는 '엄마역할을 하는 엄마'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엄마학교 교육과정**

교육내용 : 초등학교 전과목(무료교육)  
 교육기간 : 상반기- 3월 ~ 7월(5개월) / 하반기-9월 ~ 1월(5개월)  
 교육장소 : 시흥시가족센터  
 교육형태 : 온라인수업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교육 및 평가  
 출석수업 -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 총 10회 진행  
 모집인원 :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혜택 :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 및 **교재** 제공(50만원상당)  
 출석수업시 **교통비** 지급  
 졸업 후, 가정학습지도일지 제출 시 **교육경비** 지급  
 다문화엄마학교 참여자를 위한 **단체 모임** 연 1회 진행

**다문화엄마학교 신청방법**

신청일정 : **상시모집**  
 신청방법 : 자기소개서 제출 후 면접진행(2월 / 7월)  
 신청연락 및 문의 : kmg0101@shfc.kr(신청메일) / 070 - 4149 - 5818(전화문의)  
 \* 민청일예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접진행 후 참여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4. 2. 26.(월) - 11. 30.(목)

시흥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b>신청방법</b>	시흥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shcity.familynet.or.kr)
<b>신청대상</b>	한국어능력시험(토픽II)에 응시한 결혼이민자 40명
<b>자격조건</b>	2024년 토픽II 응시 후 서류 제출한 자(선착순)
<b>제출서류</b>	-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 응시료 결제내역 또는 결제증빙용 영수증, 성적증명서
<b>제출방법</b>	- 이메일 제출: hope-02@shfc.kr - 방문 제출: 정왕천로449번길 51, 시흥시가족센터
<b>문의</b>	070-7119-0423 교육팀 김소망





## Bank Korea announces report on «Measures to ease labor shortage and burden of care costs in the care sector»

В сфере услуг по уходу нужны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5 марта Банк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л отче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Меры по смягчению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и снижению затрат на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Согласно этому отчету, из-за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в Корее спрос на такие услуги, как уход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и детьми,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астает, но мест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е хватает.

При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уходу неизбежен. Но проблема в стоимости рабочей силы.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как сейчас, обычные семьи, нуждающиеся в услугах по уходу, не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и услугами. Услугами по уходу с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лько состоятельные корейцы.

В результате Банк Кореи заявил: «К 2042 году двое из трех корейцев, оплачивающих за услугой, не смогут ее получить». «Мы не можем решить все проблемы, просто привлека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екторе услуг по уходу без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будет очень тяжело», - добавил он.

Что делать с затратами на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Так как же должна определятьс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услуг по уходу? Банк Кореи предложил: «Чтобы люди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мог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по уходу,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должна быть снижена путем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к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Однако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ом Конве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поэтому дискриминация в оплате труда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и иностранцами невозможна. Поэтом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меняется та же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Чтобы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Банк Кореи предложил две меры: ① найм по частному контракту каждого домохо-

зяйства и ② снижение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секторе услуг по уходу.

Согласно первому методу, отечественные семьи нанимают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частным контрактам, поэтому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меня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Однако это затрудняет вмешатель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феру услуг по уход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Гонконг и Сингапур, нанимаю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машних помощников.

Согласно второму мет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одит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нижая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в сфере услуг по уходу, включая сферу по действующ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EPS). Если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местные работники, работающие в сфере услуг по уходу, такж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низк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и они начнут увольняться.

Разнящиеся мнение в обществе

Когда Банк Кореи, который имеет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на коре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опубликовал этот отчет,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начало бурно обсуждать затраты на рабочую силу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 уходу.

Труд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никогда не следует применять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ую систему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 что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ледуе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больше бюджета в сферу услуг по уходу.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которые СМИ заявляют, что в Корее нужно платить в три-четыре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Гонконге и выступают за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ое применение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Корее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принимает решения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а использует различные методы, чтобы прислушаться к мнению общества. На основе э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имает окончатель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중략, 한글 기사 우측)

Papaya Story

## 돌봄 이주노동자 도입 불가피, 임금은?

한국은행,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



한국에서 2042년이 되면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돌봄서비스 외국인 필요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돌봄과 아이돌봄 등의 돌봄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데 내국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외국인 돌보미가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예요. 지금처럼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요. 부유한 내국인들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이로 인해 "2042년에는 돌봄을 원하는 내국인 3명 중 2명은 돌봄을 받을 수 없게된다. 외국인근로자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돌봄 인건비 어떻게 하지?

그럼 돌봄 서비스 부문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은 "저소득층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가입돼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별할 수 없어요.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각 가정에서 사적계약 방식으로

고용 ②돌봄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 방식에 따르면 내국인 가정에서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돌봄서비스에 개입하기 어려워요. 현재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이 방식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지요.

두 번째 방식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만 다른 직종보다 낮추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허가제(EPS)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돼 일자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어요.

사회의 다양한 의견 분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러한 보고서를 내자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절대 안된다며 돌봄서비스 분야에도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일부 언론들은 한국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홍콩보다 3~4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있어요. 이를 참고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요.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하려고 했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도입 시기가 올해로 늦춰졌어요.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이상이고 출퇴근형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서울시는 가사근로자의 임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어 45면, 러시아어 좌측, 영어 45면> 파파야스토리



## 더 나은 한국생활 위한 프로그램 참여

### 시흥외복, 평일한국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3월 5일 올해 평일한국어교육 1학기 과정을 개강했다. 3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입문과정의 한국어1반과 2반 등 총 2개 반이 운영된다. 각 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주로 중국, 베트남, 네팔 등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F-6)를 비롯하여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체류자격의 외국인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적응 및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한다. 4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올해 평일한국어는 총 3학기 로 운영될 예정이다. 5월과 8월에도 접수가 진행된다. 방

문 또는 전화 031-434-041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24년 외국인주민 평생교육 상반기 프로그램을 지난 2월 25일 개강했다.

외국인주민 평생교육은 직업능력개발과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마련됐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ITQ엑셀기초, 파워포인트), 영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 바리스타, 흠베이킹, 통기타, 댄스스포츠, 가죽공예 등 9개 강좌가 진행 중이다. 5월에는 원예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문의 031-434-0411 자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정리 송하성 기자

## 건강과 보건정책 정보를 한눈에 '시흥 건강이 보이는 지도' 제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건강·보건 정책 및 정보를 시흥 지도에 담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건강·보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흥 건강이 보이는 지도'를 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도를 펼치면 앞면에는 보건소, 행복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관내 다양한 보건기관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돼 있다. 지도 뒷면에는 기관별 주요 기능 및 시설과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4가지 건강 코스(▲첫 내담 건강 길(임신·출산) ▲무럭무럭 건강 길(아동·청소년) ▲건강 일상 건강 길(성인) ▲팔팔 100세 건강 길(어르신))을 구성해 시기별 지원이 가능한 보건정책을 지도에 담았다. '시흥 건강이 보이는 지도'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배부해 시민들이 지도를 통해 손쉽게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효설 시흥시 보건소장은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7일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이도 전통수산물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오이도전통수산물시장의 수산물 판매점포 44곳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오이도전통수산물시장 A·B동 통로)에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일 1회씩 특별전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송하성 기자

## 시흥시, 1인 가구 위해 다양한 사업 전개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1인 가구 지원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1인 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12일 ▲'취작은자리온케어'와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흥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3월까지 서비스 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먼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와 돌봄 공백이 있는 실

질적인 1인 가구에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부터 병원 동행, 접수·수납, 진료 입·퇴원, 귀가까지 병원을 이용하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이며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2,500원이 부과되며 택시비, 버스비 등 이동에 따른 교통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긴급상황인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 중일 때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은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해 ▲중·장년 수다 살롱(동아리 지원)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프로그램 ▲금융 안전교육(전세·금융사기 방지, 재무·경제교육 등) 등이 운영된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 정신·신체 건강증진, 생애주기별 자기돌봄을 통한 경제적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2024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지원봉사

##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모집

**접수기간** 2024년 2월~ 3월

**접수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시흥시 관내 외국인주민

**활동내용** 봉사자교육 및 행사지원 등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원문의 | 031-434-0411 \*가입자 봉사활동 필수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Par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allowed to invite seasonal workers... Marriage immigrants' complaints explode!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참여 허용 '논란'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is running a pilot project to invite parents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as 'seasonal workers.' However, marriage immigrants came forward to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s announcement.

### Accepti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universities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n February 25 that it would conduct a pilot project for the 'Seasonal Work Invitation System for Par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D-2)' and the 'Seasonal Work Agreement (MOU) Cooperation Plan between Local Governments' from February 26 to December 31.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expand the scope of invitations for seasonal workers' home country families to include not only the relatives of marriage immigrants but also the par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is application applies to parents under the age of 55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been attending a university outside of the metropolitan

area that has received certification for educational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ies for at least one year. If you have no health or criminal record, you can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the area where your child is studying for up to 8 months.

Parents of students with language training (D-4) qualifications and study abroad (D-2) qualifications at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excluded.

### Married immigrants' discontent explode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introducing foreign seasonal workers in two forms, such as inviting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and MOUs with local governments, to solve the labor shortage phenomenon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This time, it is expected to be operated in three ways, including inviting family members from the home country of international students. However, most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unable to invite their home country family members as seasonal workers even if they try to do so.

If there are no farms in the area where you live,

you cannot invite seasonal workers because there is no demand. In this case, you can participate in the seasonal work program of another local government where the farm is located, but most local governments do not allow this.

A marriage immigrant living in Suwon who called Papaya Story said, "In most areas of the metropolitan area, there are a lot of marriage immigrants who are unable to invite their families from their home countries as seasonal workers, but inviting par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is too much." "It is ignoring the reality of marriage immigrants who are unable to provide work opportunities to their native families who are having difficulty making a living, even if they want to,"

Regarding this, an official from the Immigration Policy Headquarters said, "We are well aware of the reality that marriage immigrants in areas without farms cannot invite their families from their home countries." "This project is only a pilot project that will be operated temporarily at the request of the local government. "We will look for ways to improve in the future," he said.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Mary Eve of Papaya Story

## Ở hầu hết các khu vực đô thị,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còn không thể bảo lãnh gia đình, nên việc cho phép du học sinh bảo lãnh gia đình là điều quá vô lý!

Chính phủ Hàn Quốc (Bộ Tư pháp) thông báo sẽ thực hiện dự án thí điểm, mời cha mẹ của du học sinh sang "Lao động thời vụ". Tuy nhiên,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lại lên tiếng bày tỏ sự bất mãn đối với thông báo lần này của Bộ Tư pháp.

Cho phép đối với du học sinh thuộc các Trường đại học ngoài khu vực đô thị

Bộ Tư pháp đã thông báo vào ngày 25/2 vừa qua về việc tiến hành dự án thí điểm cho 'Chương trình mời cha mẹ của du học sinh (D-2) sang lao động thời vụ' và 'Kế hoạch hợp tác lao động thời vụ (MOU) giữa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ừ ngày 26/2 đến ngày 31/12.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sẽ mở rộng phạm vi mời gia đình của người lao động thời vụ, không chỉ bao gồm người thân của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mà còn có cả cha mẹ của du học sinh.

Đối tượng trong lần này là cha mẹ dưới 55 tuổi của du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ừ 1 năm trở lên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được chứng nhận và nằm ngoài khu vực đô thị. Nếu không gặp vấn đề về sức khỏe hoặc tiền án tiền sự, cha mẹ của du học sinh có thể lao

động thời vụ ở khu vực nơi du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ối đa 8 tháng.

Và sẽ không bao gồm cha mẹ của du học sinh theo hệ học tiếng (D-4) và du học sinh (D-2)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rong khu vực đô thị.

Bùng nổ những bất mãn của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Hiện tại, để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thiếu lao động trong các mùa vụ bận rộn, chính phủ Hàn Quốc đang tuyển dụng lao động thời vụ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2 hình thức là mời gia đình tại quê nhà của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và ký kết hợp tác MOU với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à với lần này, dự kiến sẽ tuyển dụng theo 3 hình thức, trong đó có hình thức mời người nhà của du học sinh.

Tuy nhiên, hầu hết những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sinh sống tại khu vực đô thị lại không thể mời gia đình sang lao động thời vụ.

Nếu khu vực các bạn sinh sống không có nông trại, các bạn sẽ không thể mời lao động thời vụ vì không có nhu cầu.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ác bạn có thể tham gia chương trình lao động thời vụ của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khác nơi có trang trại, nhưng hầu hết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không cho phép điều này.

Một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sống ở Suwon đã liên hệ đến Papaya Story và cho biết "Ở hầu hết các khu vực đô thị, có rất nhiều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dù muốn cũng không thể mời gia đình sang lao động thời vụ, nhưng việc cho phép mời cha mẹ của du học sinh là điều quá vô lý. Đó cũng như việc chính phủ đang làm ngơ trước hiện thực dù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muốn giúp đỡ cho gia đình đang gặp khó khăn tại quê nhà nhưng cũng không thể vì không có cơ hội tìm kiếm việc làm."

Theo đó, một cán bộ của Trụ sở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hập cư cho biết "Chúng tôi cũng đang nhận thức rõ thực tế rằng những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ở những khu vực không có nông trại và không thể mời gia đình. Nên đây chỉ là một dự án thí điểm và sẽ được vận hành trong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theo yêu cầu của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ì vậy, chúng tôi cũng sẽ tìm cách cải thiện hơn nữa trong tương lai."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Papaya Story

#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ork together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보호, 정부와 지자체 함께 한다

Korea, where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every year, is preparing to welcome them. In particular, if the central government took the lead in making such preparations in the past, it appears that it will work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On February 28,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ld the '2024 1st Central-Local Council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discussed ways to cooperate i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and support for their stay with related ministries, industry organizations and 17 cities and provinces. At this meeti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discussed cooperation plans in each field, including the schedule for introducing foreign workers and support for their stay.

This yea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troduced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s 'Non-

Professional Work Visa' (E-9) increased from 120,000 last year to 165,000. Considering that the number was usually around 50,000 to 60,000 per year, this is a huge increase. <한글 기사 26면>

### Timing of introducing foreign workers by industry

The government also mentioned a detailed schedule for industries that will be permitted to hire new foreign workers starting this year. The restaurant industry and hotel/condominium industry will begin accepting applications for employment permits from business owners starting in April. It only covers building cleaning and kitchen assistance in four regions, including Busan, Seoul, Gangwon, and Jeju.

The forestry and mining industries will be accepting applications for employment permits starting in July. In the forestry industry, only companies with an annual production of 150,000 tons or more can hire foreign workers.

Restaurants decided to introduce the system on a pilot basis limited to kitchen assistants at Korean restaurants that have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5 to 7 years in 100 major regions. Restaurants with less than 5 employees can hire one foreign worker if they have been in business for 7 years or more, and restaurants with 5 or more employees can hire up to 2 foreign workers if they have been in business for 5 years or more.

### Make efforts to protect foreign worker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elieves that the size, industry, occupation, and nationality of foreign workers will become more diverse, and requested local governments and ministries in charge of each industry to play a leading role in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cannot work alone, so local cities are asking for help. To maintain a collaborative system, the government

has signed business agreements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and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한글 기사 26면>

At this meeting,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ee Jeong-sik said, "We will not allow the hiring of foreign workers simpl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labor costs," and put forward the principle that "foreign workers will be permitted only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hire domestic workers."

He continued, "Given that the four industries of food, hotel/condominium, forestry, and mining have been allowed to hire foreign workers starting this year,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protecting foreign workers." "We have decided to allow employers in four industries to hire foreign workers, provided they make efforts to prevent long working hours, guarantee the right to rest, and provide accommodation," he said. Mary Eve of Papaya Story

**시흥시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 시흥 아동확인증 지원사업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시흥시 아동임을 확인하는 **시흥아동확인증**을 드립니다.

**시흥아동 확인증**  
(Siheung Child Identification Card)

성명/성별: 임 해 로 홍  
생년월일: 2022. 12. 13.  
2023. 8. 9.  
시 흥 시 장 (Mayor of Siheung City)

근거: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2023.8.9.) 전국최초

신청대상: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내국인, 외국인)

신청기간: 상시접수 가능

신청방법: 전문상담 ☎ 031-310-2702

지원내용: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내 생일을 기록해주세요~’

**여행가는 달과 함께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2024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온라인에서 숙박비(호텔, 콘도, 펜션, 한옥까지)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기간 및 사용지역: 발급기간 2월 27일(화) ~ 3월 31일(일) / 입실기간 2월 27일(화) ~ 4월 14일(일) / 사용지역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사용처 국내 숙박 업소 / 사용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할인권 발급 및 사용

할인혜택: ₩30,000 COUPON (5만원 초과 국내 숙박상품 구매 시)

참여 온라인 여행사 (총 40개): 풀스테이, 넥스투어, 놀이와발견, 행류캠핑, 떠나오닷컴, 워홀자, 마실, 마이리얼트립, 맘맘, 빈리생활, 버블라문지, 스테이플리온, 쏘카, 아놀드, 아카데미, 오솔밭엔, 숙신, 풀마이투어, 인터파크, 팜투어, 위메도, 위홈, 제주닷컴, 카카오톡 예약하기, 팜항공, 쿠팡트래블, 투어비스, 트리플, 트립비토즈, 트립도파즈, 티몬, 관엔비즈, 한투어, 현대카드 프리비어, 호텔엔조이, 호텔메스, G마켓, ssg.com, TTBB, 11번가

참여자: 01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받기 / 02 가고 싶은 국내 숙박 선택하기 / 03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받기 / 04 안전하고 행복한 국내 여행 즐기기

QR 코드: 웹 페이지 바로가기 | ktostay.visitkorea.or.kr | 상담 콜센터 | 1670-3980



### 다문화가정 자녀 신학기 물품 전달~

시흥시가족센터, 지파운데이션과 한세실업 연계 전달식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2월 27일 지파운데이션과 한세실업의 지원을 받아 시흥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신학기 물품(책가방, 문구류, 의류 등) 전달식인 ‘한세다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한세다움’ 캠페인에서는 신학기 물품으로 책가방과 문구류 40세트와 아동 의류 200벌을 후원받아 지역에 신입학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북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지파운데이션 관계자는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

로도 굉장히 설레는 기분인 것 같다.”라며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연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학기 물품을 전달받은 아동들은 감사편지를 통해 “오래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좋은 가방을 가지게 되어 기쁘고, 나중에 커서 저도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이 없어 좋은 가방을 매지 못했는데,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어 기뻐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남들을 도와주는 회사인 한세실업에 들어가고 싶어요.”라며 감사와 함께 나눔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 목감아트하우스27 생활문화교육 '내 곁의 OO' 참가자 모집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목감아트하우스27에서 진행되는 2024년 상반기 생활문화교육 '내 곁의 OO' 참여자를 3월 19일부터 모집한다.

'반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상반기 생활문화교육은 반려자를 비롯해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생활 등 일상에서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관계를 되돌아보고자 마련됐다. 3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펫아로마테라피(반려동물) ▲내 손안의 작은 정원, 분재(반려식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요가(반려자) ▲나의 반려음악: 음악과 인생, 위로 힘이 되는 음악들(반려생활) 등 반려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문화교육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단, 재료비 일부는 수강생 부담). 참여신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방문 신청이나 구글폼 작성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확인하거나 목감아트하우스27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외 기타 문의는 목감아트하우스27(031-487-8827)로 하면 된다.

한편, '목감명화극장'의 하나로 오는 4월 20일 오후 2시에는 목감아트하우스27 3층 공연연습실에서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 '안녕 배일리'를 상영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 시흥시 올해 '일자리대책' 살펴봐요...외국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지원



임병택 시흥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올해 지역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을 밝혔어요.

#### #“모든 일자리 한 곳에서”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에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됐어요. 맞춤 일자리 정보부터 채용, 금융, 교육 지원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고용노동부는 약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어요. 여기에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가 새롭게 조성한 5층 공간으로 이전했고, ‘신중년 내일지원센터’도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여성새일본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등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구직자들과 연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됐어요. ‘신중년 내일지원센터’에서는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부터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등 일자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됐어요.

이에 따라,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과 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지원해요.

#### #“누구나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시흥시는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일상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해요. 우선,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 진출을 확대 지원해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해 사회참여를 끌어내는 ‘청년 특화 공공 일자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과 연계한 반려동물 관련 교육훈련으로 청년·여성들의 취·창업도 새롭게 지원해요.

일자리센터에서는 오토캐드 실무과정과 2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청년 특화 직업훈련을 새롭게 운영하

며 지역 내 양질의 기업으로 진입을 확대 지원해요. ‘청년협업마을’에서는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해 공간 및 교육·컨설팅도 지원해요.

#### #“서비스업 일자리 확충”

환경오염을 극복한 사회호를 품은 거북섬은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거북섬에는 국내 최초 관상어 클러스터인 ‘아쿠아펫랜드’,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 수심 35미터의 딥다이빙 시설을 갖춘 ‘파라다이스’가 조성되어 있고, 초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인 ‘브레드 이발소타운’과 ‘점핑고’, 721실 규모의 초대형 숙박시설인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요.

또한, 해양생태과학관과 1,2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 마리나, 키즈몰, 50호 공원 등이 순차적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흥시 일자리총괄과는 부서 차원의 거북섬 일자리 발굴 전담팀을 운영하며 거북섬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두보를 놓고 있어요.

임병택 시흥시장은 “일자리란 모든 정책의 핵심이고 최고의 복지다. 질 좋은 일자리가 풍부해야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시가 활력을 띤다”라고 말했어요.

과파야스토리

# Do you pay for college admissions counseling? It's free at 'adiga' 어디가!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have never attended school in Korea are bound to be unaware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t's okay when you first enter the country, but when your child enters elementary school or college, you feel frustrated and have a lot of questions. The same goes for foreign families.

Get college entrance information through 'adiga'!

The college admissions information portal, which can resolve many of the educational questions of these immigrants, has been opened with enhanced functions. 'Adiga' (https://www.adiga.kr), a college admissions information portal cre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an be used to search for college admission information, analyze grades, and provide counseling for college admissions all at once.

Since opening in March 2016, more than 540,000 people have used it. With this reorganization, test takers can easily access the 'adiga' website from any environment they want, such as a computer or mobile phone, and receive customized information they need by grade level and entrance examination period. There is no need to install an application (app).

'Adiga' are you going? You can also receive customized information by grade level and entrance exam period, including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o first and second high school students and information on rolling and regular admissions to high school seniors.

In particular, 'adiga' are the 'Government 24' (https://www.gov.kr) websit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 Certificate Issuance System' (https://csatreportcard.kice.re.kr) In connection with , a function has been added to automatically input school records and mock test scores, increasing the convenience of test takers.

From an immigrant's perspective, it is very beneficial to be able to obtain information on how to prepare their children for college entrance.

Through the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menu, test takers can inquire with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s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team or get advice on specific application strategies and direc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said, "We plan to continue to reorganize and supplement the college entrance information portal so that test-takers can sufficiently prepare for college entrance without relying on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We hope this will be a site that provides necessary information to foreign students seeking admission to Korean universities. <한글 기사 14면> Mary Eve of Papaya Story

# 다문화가족의 봄나들이, 어디? 숲에서 느끼고 배우고 힐링해요



시흥의 숲이 겨울잠을 깨내고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온순해진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숲 구석구석을 매만지고 있는 봄은 누구나 나들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절로 마음이 설레지요.

시흥시에는 소래산과 운흥산, 관무산, 마산 등이 있어요. 숲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힐링이 되지만 그 안에서 배움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3월부터 진행되는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시흥시와 함께 더 푸른 일상을 경험해봐요.

## #도롱뇽알 보고, 흙 만지며 “숲을, 느끼다”

시흥시는 자연이 주는 힘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온몸으로 숲을 느끼고 숲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일 년 내내 마련하고 있어요. ▲조남숲체험장 ▲소래산놀자숲 ▲옥구공원숲 산림복지센터 세 곳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이어져요.

체험장별로 프로그램은 달라요. 3월 조남숲에서 아이들은 봄소식을 찾는 탐정이 되어 숲에 드리운 봄의 흔적을 탐구할 수 있어요. 언뜻 속에 파리를 틀고 있는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자세히 살펴보고 숲 곳곳에 움트는 초록빛 생명들의 이름도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 받을 수 있죠^^

소래산놀자숲과 옥구공원숲에서는 봄을 맞아 몸을 가볍게 한 새들의 새로운 내집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새둥지를 관찰하며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서식지는 어디인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알아보고 직접 올해 새들이 터를 잡을 동지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얻어요.

이 외에도 봄에는 움트는 꽃과 나무, 애벌레를 자세히 관찰하기, 공벌레, 지렁이, 개미 등 땅속 생물과 친해지는 시간도 마련됐어요.

여름에는 하나의 나무가 자라나 숲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매미 등 숲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가을에는 열매와 알록달록 색을 입은 단풍의 원리를 살펴보고 자연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 #원데이클래스~ 목공 전문가반까지 “숲에서, 배우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배움을 통해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옥구공원숲으로 가요. 옥구공원에는 산림 부산물(숯가꾸기, 도심 내 위험목)을 가지고 다양한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옥구목공체험장이 있어요.

지난 2016년 개장한 옥구목공체험장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일 수업부터 4주간 진행되는 수업까지 즐겁고 유익한 목공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에서는 연필꽂이부터 휴지통, 수납함, 선반, 독서대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은 짧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재료비와 체험료 모두 포함해 2,000원이고 시흥시민은 30% 할인받으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채색비 2,000원은 별도예요.

보다 본격적인 목공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4월부터 시작하는 실용가구 클래스에 참여하면 돼요. 매월 20일부터 신청받는데, 3인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수업을 진행해요. 체험료는 역시 회당 2,000원이고, 작품에 따라 수업은 3주 또는 4주간 진행돼요. 이 클래스에서는 테이블이나 책장, 의자, 행거 등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 #맨발로 산책하고 아로마테라피까지 “숲에서, 치유하다”

빌딩숲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시흥시가 준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옥구공원숲 산림복지센터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져요. 프로그램은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신경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 차, 아로마오일 테라피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한방 건식족욕체험, 숲속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명상과 맨발걸기로 구성돼 있어요.

자연이 담긴 다양한 만들기 체험도 준비돼 있어요. 천연재료로 만드는 족욕제, 피톤치드 향기가 가득한 편백알 향기 주머니, 수면에 도움이 되는 라벤더 향초 등 일상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물품과 나무를 활용한 공예물품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시흥시가 마련한 숲 프로그램은 모두 시흥시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